

하나님의 편에 서라.

25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
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
계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출애굽기 32:25-26

인생은 누구 편에 서는지가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며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출 32: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계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 계로 나아오라”라고 말할 때 레위 지파가 나아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된 지파로 세우십니다.

2. 하나님을 좋게 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갈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
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
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였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편한 것, 내가 즐거운 것이 기준 되면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3.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막 8: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자 제자들에게 십자가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한마디도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루는 자들입니다.

4.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히 11:24-25 |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며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고난받고 손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아도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해 살면 잠시의 쾌락은 있어도 영원한 영혼의 고통이 오며, 하나님 편에서 서면 영혼의 기쁨의 충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